

문학 토론문

문학의 재생산과 사회적 이슈의 상호작용 : <몽화록>을 중심으로

이희경 / 전남대학교

본 논문은 최근 중국에서 큰 화제를 몰고 온 드라마 <몽화록>을 대상으로 하여, 드라마의 흥행 비결, 인기 드라마에서 드러나는 사회적 아젠다의 오락화, 드라마 제작의 이면에 존재하는 문화생산방식 등을 살펴보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중국과의 직접적인 교류가 쉽지 않은 때, 중국 대중 문화계의 최신 동향을 소개받고 현지 시청자들의 주요 관심사를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접했다는 점에서 무척 흥미로운 글이었습니다. 특히 <조반아풍월구풍진>처럼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중국 고전 명작들의 현대적 수용이 결국 현대인들이 꿈꾸는 미래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지적한 부분은, 문화상품 속에 투영된 소비자의 욕망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중국 드라마의 제작 현황과 문화계의 변화에 대한 토론자의 이해가 일천함을 발표자께서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이 질문에 대한 발표자의 답변을 통해 중국 문화계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1. 본 논문을 재차 읽으면서, 서두에서 언급한 “인기 드라마에서 드러난 사회적 아젠다의 오락화”의 형태가 어떻게 드러났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발표자께서 의미하시는 바가 <조반아풍월구풍진>보다 더 낙후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몽화록> 속의 젠더의식을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환락송> 같은 드라마들에서 볼 수 있는 “감정적 갈등’과 ‘사회적 이슈’ 간의 긴밀한 연계를 통한 시청자의 공감 유발”을 가리키는 것인지, 그도 아니면 또 다른 현상을 가리키는지 확실치 않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 <몽화록>의 양양(楊陽) 감독이 “어떤 장르를 제작하더라도 사회와 인간성에 대한 탐구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도 “스스로를 ‘낮은 목소리의’ 감독이라고 하며 사회적 이슈를 반영하려는 의지가 그리 강하지 않다고 밝혔다”는 내용이 2장 앞부분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양 감독의 인터뷰 전문을 찾아보지 않아 오해한 것일 수도 있으나, 본 논문에 소개된 내용만 놓고 보자면, 그녀의 발언은 서로 모순된 것처럼 들립니다. 사회에 대한 탐구를 멈추지 않겠다고 하면서, 동시에 자신은 사회적 이슈를 반영하려는 의지가 강하지 않다는 감독의 발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3. 주선을 드라마처럼 중국정부의 문예정책에 의해 의도적으로 제작되는 경우도 있지만, 통상 드라마라는 대중문화상품은 시청자들의 반응에 의해 그 성공 여부가 갈립니다. 또한 시청자들이 집중하고 열광하는 부분이 제작자의 의도와 사뭇 다른 경우도 자주 발생합니다. 본 논문은 제작자가 홍보를 위해 갖다 붙인 ‘편제남친’ 같은 타이틀과 이로 인한 파편화, 낙인화된 ‘상호작용’이 <몽화록>을 둘러싼 논란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젠더 문제를 사이에 두고 형성된 서로 다른 시청자들의 대립이 “관념의 소구(訴求)와 표현의 극단화를 초래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드라마를 둘러싼 시청자들의 의견 충돌과 대립, 그에 따른 극의 변화 등은 어느 지역에서든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갈등들의 등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기 드라마를 둘러싼 온갖 반응들이 내포하고 있는 사회적 의미가 아닐까요? 발표자께서는 <몽화록>를 둘러싼 이 다양한 논쟁들이 보여준 현 중국사회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